

《켄타우로스의 비평》 선정기

11월의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데엔 두 가지 의미가 다름을 벌였다. 시류에 대한 돌이킴이나, 아니면 비평문화를 모처럼 정색할 것이냐. 그야말로 서지문화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다. 우리 교육을 성찰한 《위장된 학교》를 뒤로 하고, 김형중의 《켄타우로스의 비평》을 ‘이달의 책’에 올린 것도 그런 ‘오십보 백보’ 같은 딜레마의 결과였다. 13권의 양서를 둔 토너먼트식 검색 과정 또한 고역이 되 즐거우 고역이었다. 터잡아 집을 짓듯, 한 권 한 권 서물 書物로서 가치를 힘겹게 가늠하는 일은 삶과 삶에 대한 또다른 학습이었다.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는 그래서 〈출판저널〉의 한달치 의제 가운데 백미가 아닐까 싶다.

청명한 기후 탓에 독서를 게을리해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명명했다던가. 허나 후보작으로 오른 책들은 그같은 역설을 무색케 했다. 김영덕의 《위장된 학교》를 비롯, 조한범의 《정말 궁금한 우리말 100가지》, 박홍규의 《몽테뉴의 숲에서 거닐다》, 전용우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소나무》, 표정훈의 《탐서주의자의 책》, 김서정의 7인의 《달려라 그림책 버스》, 장승옥의 《재미나는 우리말 도사리》, 이춘기의 《한글을 읽는 시선의 움직임》, 이인휘의 《내 생의 적들》, 김형중의 《켄타우로스의 비평》, 신동훈의 《살아있는 우리 신화》, 빅터·D·차의 《적대적 제휴》, 고석규의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등은 읽지 않곤 못 배길 계절의 명저들이다.

그 중 마지막 ‘경우의 수’로 간택된 것이 《위장된 학교》, 《켄타우로스의 비평》과 함께 《달려라 그림책 버스》, 《살아있는 우리 신화》, 《적대적 제휴》였다.

《달려라 그림책 버스》는 사랑, 신뢰 등 삶의 미덕을 그림 이야기로 풀어낸 동화다. 원주 ‘패랭이꽃 그림책 버스’의 운영을 위해 7인의 글 작가와 7인의 그림 작가가 글과 그림을 기증해 만들어졌다. 한편으로 일곱 개 사랑 이야기를 통해 동화의 경계를 넘어선, 어른에게까지 유효한 원초적 지혜의 메타포라 해야 마땅하다.

천지왕, 대별왕, 소별왕, 바리, 강림도령, 당금에기... 《살아있는 우리 신화》는 화롯불걸 할머니의 구수한 입담 같은 우리네 신화를 오늘에 되살렸다. 로마나 히랍신화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75명의 신들의 스물다섯 편 이야기는 ‘우리’를 새삼 알게 하고, 민족 본연의 속

『왜?, 어떻게』가 함께 있는 『켄타우로스』(반인반마半人半馬)적 비평 시학과 해석학이 이웃하며, 직관과 학식의 은총을 입을 인본인 사고의 콜라주

내를 이해하게 한다. 책 《적대적 제휴》를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이 엮어내는 퍼즐의 정답이 손에 잡힌다. 지은이는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역사적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안보 영역의 발전적 제휴”를 설파한다. 그리곤 유사동맹모델과 삼국간의 협력과 갈등, 게임 논리를 통해 ‘통일 한반도’ 이후까지 아우른 합목적적인 ‘적대적 제휴’를 구상했다.

《위장된 학교》는 교육문제에 관한 여느 춘추제가 식 처방과 획을 긋는다. 독일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흔히 해외에서 고국의 참모습에 눈을 뜬 많은 우국지정이 그렇듯, 트인 시야로 우리 교육을 들여다본다. 대학 서열화, 위인전 독서 문화, 객관식 일변도 시험, 고시촌 문화 등 비교육적인 현상을 들춘다. 표피적 관찰이나 정책적 대안에 그치지 않고 지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성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술한 진단·처방서와 다르다.

그럼 《켄타우로스의 비평》이 왜 ‘이달의 책’인가? 저자인 문학평론가 김형중의 술회가 그 답을 대신한다. 그는 “프랑코 모레티 말마따나 ‘왜?’도, ‘어떻게?’도 반반씩 다루는 켄타우로스(신화속 반인반마半人半馬)적 비평가가 되련다”고 술회했다. 그런 반경의 평론집 《켄타우로스의 비평》은 문학의 의미 새김과, 시대와 글의 어울림이 분명하다고 했다. 주위로부턴 “비평이 소설처럼 재미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고 털어냈다. 책은 1부에서 백민석, 김연수, 김종광, 김경욱, 류소영 등 1980년대말에서 1990년대초 대학을 다닌 작가들을 해부했다. 2부는 80년 5월 광주항쟁 관련 소설들에 대한 글 두 편, 3부와 4부는 ‘반과우스트’적 소설 읽기 글을 담으며, 비평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엿보게 한다.

문학평론가 황중연은 “그의 평론은 유쾌하고, 언어의 미술에 홀린 문학청년의 순정이 있고, 시학과 해석학이 이웃하며, 직관과 학식의 은총을 입을 사고의 콜라주”라고 했다. 그런 찬사에 합당한 저작이 바로 《켄타우로스의 비평》이다. 땀흘린 뒤끝의 샤워처럼 상쾌한 지적 묘미도 있어, 《위장된 학교》에 앞선 ‘이달의 책’으로 ‘점’ 할밖에 도리 없었다.

